

광주시, '기업탄소액션' 온실가스 1638톤 감축 성과

지역중소·중견기업 12곳 참여
소나무 1만1천그루 식재 효과
2030년까지 11% 이상 감축
“선도적 탄소중립도시 모델로”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 ‘기업탄소액션’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거뒀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업탄소액션’

은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 사업이다.

또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가 남은 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해 5월30일 ‘기업탄소액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기별

로 3일간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은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시장(K-ETS)을 준용해 운영 중이다.

참여기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개년(2020년~2022년) 평균(4만 5095.4톤) 대비 11%(광주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감축 목표)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은 매년 초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

당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매도를 통해 가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매입해야 한다.

실제로 2024년도 거래실적을 평가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4만3457.5톤으로, 3개년 평균 대비 총 1637.9톤 감축했다.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량은 소나무 1만1727그루 심은 것과 같은 결과다.

광주시는 매년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배출권거래 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 표창, 탄

소중립 선도기업 현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진단과 개선방안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현운 기후환경국장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기업탄소액션은 광주시 2045년 탄소중립 달성과 향후 확대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참여 희망업체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해 광주시가 선도적인 탄소중립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본격화

의향단계부터 단계별 맞춤 지원
올해 300명 이상 유치 목표 추진

전남도가 수도권과 타 지역 도시민이 전남 어촌을 찾아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정주의향이 있을 때부터 정착할 때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2025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이 사라지는 전남 어촌에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민에게는 전남 어촌에서 성공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전남 어촌으로의 귀어 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을 위해 전남 어촌에 정주할 의향이 있는 단계부터 지원을 시작해 이주 준비, 실행, 정착 등 4단계로 진행한다.

정주의향 단계에선 전남 어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귀어·귀촌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전남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우수 귀어인’ 사례도 공유한다.

이주 준비 단계에선 전남 어촌에 정착할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남 귀어 스포츠를 개최하고, 우수 어촌계와 직접 만나 귀어·귀촌을 상담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민이 직접 찾아갈 경우 만나기 어려운 전남 어촌의 어촌계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이 어촌계 가입 조건, 빈집, 일 자리 등을 설명하고 정착 가능성을 상담하는 방식이다.

이주 실행 단계에서는 ‘전남 어촌 탐구생활(2박3일)’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 귀어 스포츠에 참여한 도시민이 자신이 거주하게 될 전남 어촌을 찾아 실제 어업 활동이나 마을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귀어·귀촌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한다.

마지막 이주 정착 단계에선 장기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2주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정착 준비에 들어가도록 지원한다.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부지 마련 협의,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 한 해 300명 이상의 귀어 희망자를 상담, 많은 도시민의 귀어·귀촌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체계적 지원과 정보 제공을 통해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 어촌으로 귀어·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http://www.jnsealife.or.kr/>)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해빙기 안전사고 선제 대응 총력

4월2일까지 취약시설 486곳 점검

전남도는 17일부터 4월2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해빙기 취약 시설물 486개소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축대, 옹벽, 절개지 사면, 낙석 위험지역 및 건설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옹벽과 축대 균열·침하, 붕괴 징후 여부 등 △도로 사면 또는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및 인공사면 균열, 지반 침하 여부 등 △공사장 인접 지반 침하, 균열로 인한 건축물 상태, 흙막이 계층 관리와 어스앵커 결합 여부,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과 지주 변형 여부 등이다.

또한 재난 취약 주요 시설물은 도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관리주체부서,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해 도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482명)도 해빙기 점검 기간 중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신문고, 도민안전점검청구 등을 통해 신고해 안전 위협요소 제거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4월2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항구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고우려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신속하게 안전조치(사용제한·사용금지 등)하고, 균열, 지반 침하,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 등은 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오지현 기자



광주선관위 새마을금고 캠페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서방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지난 15일 광주 북구 안보회관에서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포춘퀴퀴 뽑기와 함께 새마을금고 선거 투표참여로 새마을금고와 우리 지역에 행운을 담는다는 ‘새마을 뽑고, 새마을 담고’를 주제로 열렸다.

광주시선관위 제공

“일경험 상담하세요”… 광주시, ‘드림만남의 날’ 연다

17~19일 시청 1층 시민홀서
310개 사업장 직무적성 탐색

광주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참여신청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드림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

‘드림만남의 날’은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터(참여사업장)와 구직청년이 만나 일경험 상담을 하는 자리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주), 해양에너지(주), ㈜무등기업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10개 드림터가 참여한다.

이들 드림터는 300여개 부스에서 사업장이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해 상담한다.

광주시,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점검기관 30곳 대상 실무교육

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무등홀에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30곳과 자치구 건축물 안전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재난과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또 행사장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자세한 드림터 상담일정과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http://gjyouthdrea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또는 주 40시간씩 3개월간 일경험을 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169여만원~27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720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광주시는 일경험에 참여할 제17기 드림청년 420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19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드림만남의 날’에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19일 밤 9시까지 누리집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6일 광주청년정책 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은 3월 4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하게 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장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채용 결정 요소로 ‘직무 관련 일경험’이 꼽히는 만큼 청년들이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을 됐다. 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기술인력과 점검장비를 확인하고, 지역 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 점검을 지속 추진해 광주시가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